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 강준식(김경연B) 김규찬(최효자) 김기수 김미경 김미희 김병율(이영숙) 김정자 김종진(한안나) 김지한(유소정) 김진희 박금업 박부홍(최귀남) 방석태(차옥자) 배경철(김순옥) 백성원(안지영) 성미영(박영식) 유현호(이영미) 윤 숙 윤승한(민옥희) 윤영준(박진숙) 윤정호(유옥자) 이상희 이옥남 이태일(송백현) 이한홍(김순옥) 장윤주(김현진)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정은희 주경덕(이경자) 채명영(서시철) 천세력(영영분) 천영란 최기훈(정계숙) 최상걸(이미향) 최정규(김미영) 최정희(박원조) 하세련 황영옥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최지은) 김규찬(최효자) 김순옥(이한홍) 김태한 김현옥 박금업 안지영(백성원) 윤 숙 윤승한(민옥희) 이미자 이윤옥 이종문 이태일(송백현) 이한홍(김순옥) 정기성(심순옥) 채명영(서시철) 천세력(영영분) 최기훈(정계숙) 최정희(박원조) 하세련 홍유정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최지은) 이필레 김경연(손정아) 김병율(이영숙) 김경연B(강준식) 김중익(박애순) 김춘화 박부홍(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백성원(안지영) 손명화(유호근) 윤정자(최성현) 이미자 이종문 이한철(박희영) 이향교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정상래 조규래 채만기(장은주) 채명엽(서시철) 천세력(영영분) 하세련 무 영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준홍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식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소은 이승애 이아은 이옥남 경승현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영

♠ 월정헌금

홍유정

주간 성경연구

| 40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 | | |
|---------------------|-------------------|-----|-------------------|
| 주 일 | 창세기 30장 14절 ~ 24절 | | |
| 월요일 | 창세기 30장 25절 ~ 43절 | 목요일 | 창세기 31장 36절 ~ 42절 |
| 화요일 | 창세기 31장 1절 ~ 16절 | 금요일 | 창세기 31장 43절 ~ 55절 |
| 수요일 | 창세기 31장 17절 ~ 35절 | 토요일 | 창세기 32장 1절 ~ 12절 |

| | | | |
|-------------|---|--|--|
| 원로장로 | 이태일 정기성 | | |
| 시무장로 | 윤조훈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 | |
| 은퇴장로 | 방현옥 장명원 문영연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 | |
| 교역자 | 부목사 | 김재호 | |
| | 전도사 | 이필레 | |
| | 교육전도사 | 김선희 | |
| 찬양대 | 지위자 | 할렐루야 : 김한나 홍산나 : 김안나 시은·에덴 : 최원지 멘젤 : | |
| | 박수자 | 오르간 | 심혜윤 |
| | | 피아노 |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
| | | 클라리넷 | 박진숙 이난수 |
| | 플룻 | 김민지 | |
| 솔리스트 | 김안나, 김정아 | | |
| 선교사 | 파송선교사 |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열 이성옥 미국 : 김다니엘 대국 : 최옥희 |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
| | 협력선교사 |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 태국 : 박경환 이순연 |
| 협력교회 | 제주 대광장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 | |
| 협력단체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 | |

2022. 09. 25.

| | | |
|--------------------|-------------------|-------------------|
| 읽기 8장 8-22절 | 지혜롭지 못한 권면 | 설교: 이진우 목사 |
|--------------------|-------------------|-------------------|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뽐내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거쳐 정답을 확실히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분명 옳의 경우를 통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다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모두 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빌닷이 옳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더욱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거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 빌닷은 기본적으로 옳이 당한 환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옳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닷은 옳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닷이 이 말을 옳에게 할 때 그는 옳과 그 자녀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단정 짓고 정죄한 후 옳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진멸 아닌 데서 자라는 왕골과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갈대와 같아서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닷이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환난을 만난 옳의 상황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빌닷은 일반적 상식으로 옳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빌닷은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고 떠난 결과 환난과 징벌을 받아 많은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 다. 그러나 모든 환난이 죄 때문이라는 빌닷의 단순한 생각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 지식과 상식으로 함부로 다른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 빌닷은 옳이 하나님을 잊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로 돌아올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므로 옳이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의 복을 베푸시리라는 말입니다. 분명 이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빌닷은 옳에게 재난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듯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옳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입에 웃음을, 그의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옳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복수 하셔서 그들의 장막을 없애시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러한 진술은 옳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옳의 상황과 그 아픔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말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닷은 옳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상식적이고 형식적인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말은 옳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외로움과 슬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옳의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특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지혜 곧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도 분명 상황에 따라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지혜로운 자, 성령의 분별하시는 은혜로 지혜롭게 권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사랑과 배려 없이 권면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 빌닷의 근본적인 문제는 옳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찾아 왔지만 일반적인 지식인 상식으로 상대방을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 나지 않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번민하고 있는데, 빌닷은 자기 생각으로 옳을 규정하고 나름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가 옳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했다면 옳의 말을 들어 주면서 그의 심정을 동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병이 나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은 죄가 없기에 아프지 않고 상대방을 회개해야 할 죄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방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게 됩니다. 성도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말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정된 위로를 전하며 그들의 도움이요,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성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 합니다. 사람의 지체 중 유일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관은 머리로, 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각하며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고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성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이 정한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동감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머리가 아니라 붙잡아주고, 찾아가며, 힘이 되어주는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참된 위로자요,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40

2022. 10. 0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성현교회

